

익산시 주거 지원 정책 ‘결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작년 250명 익산 전입 성과

익산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포함 약 1,6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250명이 익산으로 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현재까지 4달여 만에 누적 4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 중 20%는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가구이며, 신축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는 90% 이상이다. 또한 수혜자 중 70%는 기혼자로 가정형성과 출산을 통한 정주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지역 내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입주 상황을 활용해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과감하게 시행한 결과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디



딤돌 대출, 보증자리 론(Loan) 등 정부 저리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의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청년은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청년층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세보증금 이차지원 대상자 중 70% 이상이 구축 아파트에 집중됐으며, 미혼 청년층 비율은 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주택 구입 수혜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익산시가 청년들의 결혼 유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인구 정책에서 뜻 깊은 성과를 도출한 만큼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도 5,0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만큼 사업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인구 허리층인 청년세대가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지원,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영컨설팅 전문가 자문·경영환경 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익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분야는 △마케팅 △경영진단 △점포운영 △재무관리 △채널링 등 5개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0월 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과의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속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한다.

시는 사업장 환경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사업장 내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는 매출규모와 영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과의(063-8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과 새만금 관련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군산새만금 신항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해양관할구역 확장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군산시 입장과 논리를 발굴하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시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위원회는 26만 군산시민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관할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에 활력

국내외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 마쳐... 약 2억3100만원 경제효과 발생

익산시가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4년째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후원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펜싱협회가 주관했으며,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14일간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국가대표 후보선수 48명뿐만 아니라 호원대·경남대·호남대 펜싱팀과 중국 산둥성 펜싱팀 등 국내외 선수들이 방문해 명품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으며, 선수단 총 150여명이 참여해 2억3,1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원활한 전지훈련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시는 선수단이 훈련하는



익산시는 2022년부터 4년째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힘썼으며, 특히 정현을 시장은 지난달 28일 실내체육관을 찾아 설 연휴기간에도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지훈련 유치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반

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스포츠 선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하반기에도 펜싱, 육상,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이 예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난상토론식 간부회의 도입 ‘주목’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정의 투명성 제고 기대

군산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도입한다.

이번 회의 방식의 변경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간부회의는 주요 현안을 ‘금주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필요시 사업 현장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토론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1960년생 대상

페렴백신 무료 접종 시작

익산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이며, 1960년 1~12월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13가’를 접종한 경우에도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1회 재접종이 필요하다. 23가는 국내 폐렴구균 백신 중 가장 넓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어 폐렴구균의 예방방위를 넓혀 줄 수 있다. 접종 방법은 13가 폐렴 접종 후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23가를 추가 접종하면 된다.

백신 접종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91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접종대상 여부 확인, 위탁의료기관 안내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063-859-483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희망자는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이나ARS(1551-0857)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월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타 사항은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